

工場 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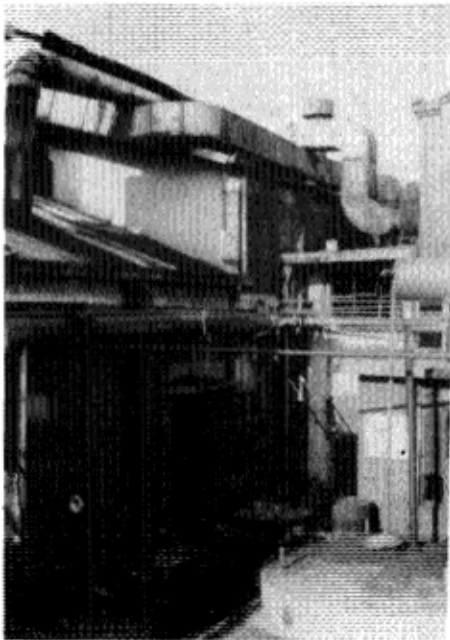
〈(주) S物産 火災〉

老朽「보일러」의 作動不良—燃料의
異常過多供給으로 인한 爆發火災

1980. 1. 3

—擔當者が 자리를 비워…適切な 安全措置가 늦어져—

負傷 1名, 財産被害 3千3百餘萬圓



보일러실 건물의 화재후 모습



보일러실의 Control Panel 손상상태

● 一般事項

建物用途：染織工場

所在地：서울 特別市 永登浦區

火災日時：1980. 1. 3, 07:25~07:50

發火位置：工場內「보일러」室

火災原因：老朽「보일러」의 作動不良으로 인한 燃料의 異常過多供給으로 燃料蒸氣가 點火되어 爆發, 發火

●工場概要

建物現況：堡地 12,000m², 1962年 新築後 68年 및 78年度에 增築된 延面積 18,200 m²의 4層 RC造(일부 木造)의 本工場(罹災建物)과 기타 6個棟의 小規模 附屬建物로 되어 있었다.

生産現況：從業員 380名(男：266名, 女：114名), 染織, 加工絲 및 織物 製造工場. 生産能力은 染織 1만kg/日, 織物 5,000Yd/日이었다.

●火災의 發生 및 消火活動

1月 1~2日의 休務가 끝난후 화재당일인 3일 06:30시경 熱媒「보일러」를 點檢한 後 稼動시킨 全自動이었던 동「보일러」는 정상상태로 운전되었고 이를 10분정도 확인한후 다른 업무차 자리를 뜬후 07:20시경 되돌아 오니 「보일러」실에서 연기와 하얀 연료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사고지점에 달려 갔을 때 “펑”하며 순간적으로 폭발, 불이 크게 확대되어 급히 급유「밸브」를 잠그고 뛰어나와 신고하였 다. 종업원들이 소화기 및 옥외소화전으로 연소확대를 저지하였으며 곧이어 도착한 소방대(소방차 20대, 化學車 1臺 포함)에 의하여 발화후 약 25분후에 진화하였다.

●火災原因

사고 「보일러」는 10년전 설치된 소형 자동 熱媒「보일러」로서 老朽된 부분이 있어 온도가 정상稼動的 단계까지 오르는 순간 돌발적으로 많은 경유가 噴出, 약간의 熱衝擊이 생기면서 送油管 및 接續部分, 전자「밸브」, 「펌프」 등의 일부가 弛緩, 연료가 누설되면서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일부는 가연성 ‘증기’가 되어 실내에 충전되고 이 ‘증기’가 전기장치의 「스파크」와 「보일러」 불에 점화되어 폭발하면서 큰 충격은 아니나 건물 일부가 무너지고 송유관 등의 이음부분이 이완되어 연료가 더 많이 누출되어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.

●被害狀況

人命被害：負傷 1名(인접 작업장에 있던 女從業員이 폭발시 벽체의 벽돌 파편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음, 3주진단)

財産被害：3천3백여만원

●問題點

1. 老朽보일러設施의 整備不良
2. 보일러 擔當者의 勤務地 離脱